

한국경제

세계적 수준의 국산 임플란트, 의료진의 선택이 중요하다

기사입력 2012-07-06 10:16 최종수정 2012-07-06 10:38



[이송이 기자] 국산 임플란트의 수준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현대증권은 대표적인 국산 임플란트 제조회사 중 하나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매출성장률이 약 1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쟁사인 스위스의 노블 바이오케어(Noble Biocare)나 스트라우만(Straumann)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동기간 국내 매출액 성장률은 8.4%에 불과하지만, 해외법인의 매출 성장률이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6위 수주이지만, 성장률과 수익성 면에서는 최상위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원인은 우선 제품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우수한 품질이 아니고서는 일정한 품질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고 소비자의 평가가 냉정한 미국시장에서 결코 선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는 생체 친화성이 좋고 치조골과의 결합이 잘되는 재료를 선택하여 제작해야 한다. 생체친화성이 좋은 임플란트의 재료들로는 티타늄, 지르코늄, 니오비움, H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강도나 뼈와의 결합능력 등을 고려할 때 티타늄 임플란트가 가장 안정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티타늄 임플란트는 오랜 기간 실험을 거쳐 인체에 안전한 재료임이 밝혀져 왔으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현재는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생체결합력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에따라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 또한 더욱 높이게 된 것이다.

한편 성공적으로 끝난 임플란트의 본체 위에는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몇 가지 구조물이 올라가게 된다. 이 구조물은 제작될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뼈 안에 식립되는 치근인 '임플란트 매식체(Fixture)' 매식체 위에 잇몸을 뚫고 나오는 기둥인 '임플란트 지대주(Abutment)' 지대주와 치근을 연결해주는 나사(Abutment screw), 보철치아의 내면(Gold cylinder), 지대치 연결 나사(Gold screw)로 구분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료진의 신뢰성입니다. 임상경험이 많은 의료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효율적인 문제해결과 치과 지식의 공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재료 역시 중요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면서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시술방법입니다. 치료 부위의 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의 경험이 많은 의료진의 선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전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임플란트를 원하는 환자라면 '최소절개 최소통증'의 원칙에 따라 시술하는가, 믿을 수 있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CT촬영을 통해 치아, 턱뼈, 얼굴 뼈 부위의 영상을 입체화면으로 구현해 환자의 정확한 치조골의 상태를 파악하는가 등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국내 '물 좋은 해수욕장' 어디? best 5 선정**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구직자 83%, 합격 후 입사 포기 "왜 이러는 걸까요?"**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 팬택 '베가 S5' 출시, 사전 공개 ... 히든카드로 갤럭시S3 잡는다?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16894>
